

2024. 3. 27.(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이 정 옥

2133-868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가족지원팀장

최 희 곤

2133-8690

서울시, 7월 '보호출산제' 시행 대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강화

- 작년 9월 전국 최초 24시간 비밀상담 시작...104명에 상담, 시설입소 등 1,146건 지원
- 전화(☎1551-1099)·카톡 상담, 개별상황 파악 후 지원으로 출산·양육결정 도움
- 7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 운영...전담인력 4명→10명, 쉼터 10개소 확충

-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태어난 아이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올해 한 단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을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은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아이와 함께 거주할 공간이 없거나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경우엔 입소를 지원해주고, 상황에 따라 의료비나 생활비 등도 지원·연계한다. 병원에 함께 동행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해주거나,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물품 등도 지원해주고 있다.



- 작년 9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이 문을 연 이후 약 6개월간 ('23.9.~'24.2.) 100명이 넘는 위기임산부가 사업단의 문을 두드렸다. 사업단은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총 1,146건의 도움을 지원했다.
- 104명 중 10대 23명, 20대 24명, 30대 29명, 40대 4명, 미상(비밀

상담) 24명으로 파악된다. 본인이 접수한 경우가 74명(71%)으로 직접 도움을 청한 사례가 더 많았다.

- 전체 지원 중 상담은 889건이었고, 서비스 제공·연계 등은 257건이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35건을 상담했고, 6명이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서비스 제공의 경우 의료비 지원 21건, 물품지원 8건, 생활비 지원 5건, 병원동행 5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운영실적(상담 및 서비스 제공·연계 등)

(단위 : 건)

총계	상 담					시설 보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	기관협의 등 기타
	상담 소계	전화 상담	카톡 상담	현장 상담	내방 상담				
1,146	889	340	413	35	101	6	45	45	161

- 7월부터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빈도를 낮추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 아울러 위기임산부의 시설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월1일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상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까지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구 분	2023년(통합지원사업단)	2024년(통합지원센터)	
접근·발굴	24시간 핫라인 구축(전문상담인력 3교대) ◦ 1551-1099(콜센터), 카톡채널	운영인력 4→10명으로 확충 ◦ (기존)위기임신상담 + (추가)보호출산 상담·대응	
지원	긴급 보호	출산지원시설 (7개, 중위소득 100% 이하) 민간 위기임산부의집 (3개, 소득기준 없음)	+ '24년 강화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시설 입소(7월~) ※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출산지원시설 소득기준 폐지(1월~) 가정 같은 양육환경의 쉼터 신설(10호)
	자원 연계	공공 사회보장제도 정보제공 및 연계 (미혼모 재정지원, 보편적 임신·양육지원 등)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 민간지원 적극 유치 → 다양한 자원으로 위기임산부·아동 두텁게 지원

- 한편, 사회적 약자지원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공헌기업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해 위기임신 사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으로 고민, 갈등하는 위기임산부 누구나 서울시가 24시간 운영 중인 비밀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을 한 단계 강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시간 위기임산부 상담 (☎1551-1099)

- 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
- 지원대상 임신으로 고민, 갈등하는 누구나
(소득·혼인여부 관계없음, 지인도 상담가능)
- 지원내용 비밀상담, 맞춤형 지원 및 연계
(찾아가는 상담, 출산지원시설 연계, 생활 지원 및 연계 등)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 청소년 임신부 보호지원

- 개요 : A 자치구 거주, 고등학교 재학 중, 접수경로 1551-1099
- 지원서비스
 - 의류 지원 2회, 프로그램 준비물 지원 1회
 - 약제비 지원 1회
 - 병원동행 및 의료비 지원 2회
 - 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
- 인터뷰 : 임신 사실을 알고 아빠에게 말했지만 집에서 나가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짐만 챙겨서 일단 나왔는데 당장 갈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남자친구가 인터넷에서 알아봐준 곳은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1551-1099라는 번호였어요. 상담을 통해 제가 보호받을 곳을 안내 받았고 거기서 지내는 동안 학교도 다니고 상담원 선생님이 병원도 같이 가 주셨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 30대 미혼모, 기존 자녀 양육 중 갑작스런 임신 지원

- 개요 : B 자치구 거주, 기존자녀 1명, 미혼, 접수경로 1551-1099
- 지원서비스
 - 병원 의료비 지원 4회
 - 출산물품 지원 1회
 - 약제비 지원 1회
- 인터뷰 : 저는 미혼으로 첫째아이를 조산아로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아이 임신기간도 불안함으로 시작되었고 임신으로 직장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임신기간 동안 지쳐갈 즈음 인터넷 검색으로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병원진료 및 출산비용도 지원, 연계받고 심적으로 지쳐있는 제가 위로와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수에 딱 맞춰 출산할 수 있었고 둘째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